

## 양성옥선생님 녹취록

### 1. 생애사1 : 성장기 (1954-1975)

#. 자막

생애사 첫 번째, 성장기(1954-1975)

#. 질문1 자막

자막 : 춤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

**양성옥 01:59**

저는 6살 때 제주도 고전무용연구소에서 처음 춤을 배우기 시작했구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무용을 굉장히 예의해 주시는 교육자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그런 적극적인 지원으로 행복한 유년기의 춤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춤을 추게 된 계기는 저희 이모가 목포 여중 무용교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동요 <바위 고개>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에 맞춰서 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를 공짜를 자꾸 집에서 연습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제가 무용에 조금 소질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렇다면 '무용연구소를 좀 보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제주도에 있는 그때는 고전무용연구소였어요.

지금은 학원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연구소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전통춤. 살풀이춤 비롯해서 소고춤 또 삼고무를 비롯해서 뭐 이렇게 부채춤 또 그 당시에는 난방 무용이 성행했거든요.

그래서 난방 무용

**양성옥 03:19**

또 이제 집에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풍류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가야금을 배우게 하셨죠. 초년은 이제 그렇게 무용을 시작을 했는데. 제주 여자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제대로 된 무용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 제주 무용 대부이신 송근우 선생님과 또 제주 무속의 '칠머리 당곳'에 보유자이신 안사인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주의 무속, 이를테면 영감놀이, 영등꽃 놀이 같은 무속 또 민속 춤으로는 허벅놀이 또 물허벅춤, 해녀춤, 대바지춤. 뭐 이런 춤들을 두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향후 제 춤길에는 전통적 민속적 그런 정서가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에 이제 무용과에 입학하면서 신무용의 르네상스를 이끈 신무용의 대모

김백봉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제 춤새가 이제 또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 선생님은 춤꾼으로서의 정말 중요한 자세. 또 가르치실 때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런 열정적인 가르침은

#### 양성옥 04:49

이 다음에 제가 지도자로 되면서도 그러한 그 선생님을 본받고 그런 저의 교육 지침이 되고  
있더라고요.

또 이제 국립무용단에 입단하면서 송범 선생님을 만났죠.

이 송범 선생님은 한국 무용극을 정립하신 분으로서 또한 그 무대 무용 선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은 감정 이입에 의한 춤의 표출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그런 춤의 미학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립무용단 한 22년 있었는데. 그 긴 세월은 저한테는 너무나 값진 체험이었고  
정말 삶의 보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춤 철학은 바로 저의 춤 세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국립무용단에 입단을 해가지고 첫 출연한 작품이 강선영 선생님이 안무하신  
<원효 대사>였어요.

이럼으로써 또 강선영 선생님과 인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강선영 선생님이 갖고 계신  
태평무를 비롯해서 모든 춤들을 전수받으면서 강선영 선생님의 전수 교육 조교까지 됐죠.

#### 양성옥 06:08

어쩌면 저는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운아였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유전적, 기술적 면까지 제 몸에 용해가 돼가지고. 이제는 운명적인 삶으로  
지도자의 길, 예술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 질문2 자막

자막 : 고향인 제주에서 성장기를 보낸 것이 선생님의 춤에 미친 영향이 있을까요?

#### 양성옥 06:43

너무나 있어요. 당연히 그게 어릴 때의 그 추억은 그 당시에 잊어버렸다 생각했는데. 내가  
지도자 안무자가 되면서 저도 모르게 그 옛날 추억을 실타래처럼 이렇게 빼놓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시절의 춤을 상기를 해보면 낭만이 있었고요.

희망이 있었고. 꿈의 세계를 펼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인들이나 현대인들이 접하지 못한  
자연 속의, 자연과의 대화, 생활 속의 춤, 춤 속의 생활 이런 경험들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송근우 선생님과 안사인 선생님이 협업으로 예를 들면 무속무용 영감놀이(확인)라든가  
영등놀이, 영등굿놀이 그다음에 민속춤으로 해녀 춤이라든가 물허벅 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국 민속 경연대회에 매년 저희가 출전을 했어요.

그때의 향토 무용의 경험은 후에 제가 도립무용단 안무자로 가면서 제주도 상징의 춤으로 꽃의 속삭임 또 딱따구리 새 춤, 그다음에 허벅놀이, 그다음에 해녀 춤 이런 4대 상징의 춤을 <돌의 무늬>이라는 작품으로 탄생하게 됐죠.

#### #. 질문3 자막

자막 : 스승들로부터 춤을 전수받으며 느끼셨던 것 혹은 영향을 받으신 것은 무엇인가요?

#### 양성욱 08:26

저는 너무나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 그 영향을 또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제 나름대로 작품 세계를 이으면서도 그 선생님의 역량이 그대로 내 몸에 용해가 돼 있더라고요.

첫째로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만난 송근우 선생님은 그분은 요즘의 흐름의 상태를 보면 어떤 문화에 들어가면 그 문화의 춤만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창의적인 교육 현장의 선생님으로서 한국 무용을 비롯해서 뭐 이틀테면 중국 무용, 현대무용, 남방 무용 이런 춤들을 본인이 갖고 계신 모든 춤들을 교육하셨어요.

근데 그런 교육 방법은 제가 학교에 와서 지도자가 되면서 저도 아낌없이 춤을 가리키는 그런 교육 지침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에 이제 만나신 김백봉 선생님은 무대의 미적 감각에 의한 무용 의상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대 미학과 신체 미학을 고려한 이틀테면 공장 의상, 기성복 의상, 뭐 틀에 박힌 의상 이런 의상을 지양하고,

#### 양성욱 09:52

무용수에 맞는 또 작품에 맞는 그런 의상을 강조하셨고, 디자인을 하셨고, 결국은 춤의 조형미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의상을 선택할 때는 선불리 선택을 안 하죠.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서 의상을 선택하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됐고요.

이제 국립무용단에서 만나신 만나 빈 송범 선생님은 정말 훌륭하셨는데. 이분은 무용수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했어요.

이런 자율성이라는 거는 무용수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더 어려웠어요. 그거는 수없는 연습에서 수없이 연습을 거듭할수록 다른 걸 표현하는 제2의 표현하는 것을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안무 받을 때와 나중에 춤을 출 때는 전혀 처음과 거리가 멀지는 않지만, 더 깊이 들어가고 거기에 맞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제 스스로의 표현을 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송범 선생님의 춤의 철학은 바로 저의 춤 세계가 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립무용단에서 이제 만난 강선영 선생님은

**양성옥 11:15**

이분한테 배운 거는 춤의 즉흥성이었어요. 이 춤의 즉흥성은 정말 많은 경험과 많은 연습에서 나오는 것으로 춤을 표현할 때, 우리가 평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때로는 막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그런 갈등 구조의 춤으로써 춤을 연기하는 거예요.

**양성옥 11:44**

그래서 이 연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내가 춤을 습득하고, 습득하고, 체득하고, 체득하고 막 하다 보면 완전한 감득은 없지만 감득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의 춤인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의 춤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양성옥 12:03**

그래서 '스스로의 춤은 정말 진정한 춤이다.' 이렇게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양성옥 12:26**

어떤가요? 또 어디 잘못 말한 거 없나요?

## 2. 생애사2 : 활동기 (1975 - 2018)

### 주제사1 : 예술가로서의 삶

#### #. 질문 4 자막

자막 : 20여 년간 국립무용단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 양성옥 12:58

네, 굉장히 많은 역할은 하긴 했는데요. 첫째로 부채춤이에요.

이 부채춤은 제가 무용단에 입단해서 처음으로 주인공으로 캐스팅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잊을 수 없는 작품이고, 항상 하고 싶고 그 부채의 양손에 들은 부채가 한 마리의 나비가 돼가지고 나르는 비상의 꿈을 그렇게 키웠던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추고 싶은 춤 중에 한 작품이 부채춤이에요.

그 외에 이제 많은 작품은 했지만. 대표적인 무용극을 든다면 고전주의에 속하는 <도미부인> 또 낭만주의에 속하는 <은하수> 또 현대주의에 속하는 <그 하늘 그 북소리>가 있어요.

이 세 작품은 송범 선생님이 안무하신 건데. 첫째로 고전주의의 <도미부인>은 84년 LA 올림픽 문화행사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은 200회가 넘는,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공연된 작품으로 한국 무용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은 작품이죠. 저는 그 도미 사당패의 부인인 '도미 부인' 역할로서 서민들의 애환을 그린 여주인 역할로

#### 양성옥 14:30

크게 평가를 받은 무용수로서 부각된 그런 작품이에요.

두 번째로 낭만주의에 속하는 <은하수>는 86년 아시아게임에 문화 축전 그런 행사 작품이었는데. 아시아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견우직녀'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직녀' 역할로서 한국 여인의 그 인고의 삶을 표현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주의에 속하는 <그 하늘 그 북소리>는 1990년도의 작품인데 '왕자 호동과 낙랑공주'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안무자인 송범 선생님은 원작에 없는 '가화'라는 인물을 설정했어요.

저는 이 '가화'의 역할로 이 가하는 남장 여인이예요.

그래서 왕자호동을 연모하는 항상 따라다니면서, 항상 연모하고, 서포트하고, 항상 옆에 항상 있으면서도 어찌면 낙랑공주보다 항상 곁에 있었죠.

그러면서도 연모만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비극적인 사랑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었다는 그런 주인공 역할이에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찡해요.

**양성옥 16:03**

하고 싶어 하면 하지도 못하고 항상 사랑하지만 나타나지 못하고 항상 음지해서 왕자를 도우는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 정도 할게요.

**#. 질문 5 자막**

자막 : 무용수/예술감독/안무자 등 활동 역할에 따른 예술 가치관의 변화 혹은 춤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양성옥 16:38**

굉장히 변화가 많죠. 처음에는 제가 무용수로 역할은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주신 춤을 열심히만 추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점점 성장하면서 무용수의 비교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거 우리가 망각하게 되는 점이 춤의 기교 이외에 '이 춤을 어떻게 표출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춤의 멋과 맛,

**양성옥 17:16**

결, 아우라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용수로서의 자세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런 게 그래서 항상 그 점을 항상 생각하고. 그다음에 예술감독이로나 안무자의 역할론은 저 개인적으로는 춤의 형식이 있는 춤 교감이 되는 춤, 기승전결이 되는 춤 또는 저 개인적 입장으로는 육하원칙에 의한 춤을 저는 지향해요.

그래서 제가 서울예술단에 부임하고 첫 안무작으로 가무악 <천년 전설>이라는 작품을 안무를 했어요.

이 작품은 무용의 서사시로서, 신화적인 12지 신들에게 인간의 소망을 빌고 기원하고 그러한 12지 신들을 통한 여러 인간상을 전통적 춤 사회로 안무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전통 예술의 악가무 형식을 한 전통적 춤사위로 안무된 점이 의의가 큰 작품이죠.

그래서 그 작품은 후에 제가 전통예술원에 재직하면서 전통예술원 무용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한누리무용단'에서 <12신제>라고 보완, 제작해서 재탄생되었죠.

**#. 질문 6 자막**

자막 : 우리 춤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려면 어떤 특징과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아가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무용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양성옥 19:13**

많은 무용인들이 우리 전통춤 유산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 전통춤 안에는 한국인의 생활 풍습 또 한국인의 문화가 깃들어서 있기 때문에 후세까지 꾸준히 이어가야 되고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통춤의 이렇게 내재된 것은 바로 그 DNA는 한국인의 특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통춤 속에는 정신 수양에 예가 도가 있고 한국인의 심성인 자연 순응의 정신의 춤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작 무용을 할 때에도 그러한 한국 춤의 근원인 예와 도

**양성옥 20:16**

한국 춤의 그런 심성인

**양성옥 20:22**

그런 한국인의 문화가 깃든 작품이어야 한다는, 저만의 그런 고집을 갖고 있어요.

### 3. 생애사2 : 활동기 (1975 - 2018)

주제사2 : 교육가로서의 삶

#. 타이틀

추후 재공유

#. 자막

생애사 두 번째, 활동기(1975 -2018) 및 주제사

#. 자막

주제사 두 번째, 교육가로서의 삶

#. 질문 7 자막

자막 : 예술가를 육성하면서 학습자에게 반드시 학습하도록 강조하는 본인만의 교육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양성욱 21:00**

저희가 이제 배울 때도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했고. 또 제가 가리키면서 제가 배웠던 것을 이렇게 전수하는 입장에서 저의 경험을 전수하게 되잖아요.

이 전통 춤이나 우리 춤은 답습, 답습 또 교육하는 과정에서 내 춤이 심화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춤이 생활화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생활화 속에서 춤을 분석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춤을 분석하는 습관은 춤이 생활화되면서 매일매일 내가 춤을 추면서 습득하고 또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에 용해돼서 체득이 되거든요.

근데 그 체득이 되면서 체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표현력도 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득으로 그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것, 자기만의 색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게 완성된 건 아니에요.

춤은 영원한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갈고 닦을 수 있는 계기를

**양성욱 22:17**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함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춤을 분석하는 습관을 가져라." 저의 교육 철칙이.

#. 질문 8 자막

자막 : 스승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교육관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신가요? 또한, 그런 교육관이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도입한 커리큘럼에 얼마나 녹아있나요?

**양성욱 22:44**

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많이 열거할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제가 너무나 느끼는 거 가장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무용 실기 교과목 이외에 무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무용 연기, 무용 의상 또 장단 실기, 분장 실기 거창해 보이지만 무용해부학 이런 과목을 선정했어요.

이런 과목들을 이해함으로써 '춤의 용해가 되고 좋은 작품을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었죠.

근데 결국은 이런 교과목을 선정한 이유는 좋은 음악 속에 좋은 춤을 넣고 또 거꾸로 좋은 춤 안에 좋은 음악이 탄생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를 춤을 추면서 너무 많이 느꼈던 거예요.

#. 질문 9 자막

자막 : 지속적으로 한국무용을 정리하고 기록하며 후학들을 위한 '교육방법론'까지 집필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우리 춤에 대한 기록을 별도로 만들어 정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성욱 24:15**

제가 이제 교육자로서 이제 재직하면서 느낀 건 바로 그런 점이었던거예요.

우리 전통 춤의 흐름은

**양성욱 24:25**

각 유파별로 흐름은 서로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게 형성해요.

그러면 그 다름은 피교육자의 예술사 과정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춤을 입문할 때 그 입문에서 같음을 형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같음에서 출발해서 제2의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같음이 뭐겠어요? 일종의 교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보를 또 장단보를 교재로 만들었고 그것도 또 모자라서 좀 더 더 시각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게 뭔가 한 게 영상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영상 교재를 이제 내놨는데 사실은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그 무보나 장단보는 스스로 보면서 본인이 노력하고, 그거를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춤의 영상에서는 외형적으로 그거를 또 본받더라고요.

그거는 액자 춤이거든요. 사진 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양성욱 25:45**

저는 많이 보여주질 않아요. 한 번만 딱 보여줘요.

"이런 거다. 그러면 무보나 장단보를 더 봐라." 이런 저는 교육 지침이 생긴 거예요.



#### 4. 생애사2 : 활동기 (1975 - 2018)

##### 주제사3 : 여성 무용수로서의 삶

#### #. 질문 10 자막

자막 : 한국무용이 제도화된 교육으로 정착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전통예술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인식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시기에 전통무용을 하는 것은 어떠셨는지, 특히 '여성'으로서 무용을 학습하고 연행하며 어떤 고충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 양성옥 26:34

저는 54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제 강점기는 거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고 또 제가 무용의 그런 성장기 때는 그렇게 폐쇄적인 사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통 예술에 대한 잘못된 왜곡 또 잘못된 인식, 잘못된 시각이 잠재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무용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남성 무용수의 부재로 여성 무용수가 남장을 하고, 외형적인 남자 역할로 춤을 쳤어요.

우스꽝스러운 거죠, 사실은. 지금 현대사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남성 무용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남성 무용수가 있더라도 남성이 춤추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제도적으로 사회가 인식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여장을 하고, 여자 외형적인 여자 춤을 춘 거예요.

굉장히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근데 반면에 저는 최승희 춤에서 느낀 거는 최승희도 남장 여인 춤을 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춤하고 뭐가 다르냐면 남자 여인이지만 남성의

#### 양성옥 28:01

외형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생활 풍습, 남성의 사회상을 남장 여인으로서 그거를 표현을 했다는데 굉장히 차이가 있고, 굉장히 다른 점이죠.

그래서 외모는 여자로 추는 거예요. 예전엔 외모까지 남자가 여장을 했다면, 최승희는 외모는 여자지만 남성상을 그렸다는데 굉장히 표현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 다른 점이예요.

#### #. 질문11 자막

자막 : 최근에 많이 사라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특히 '여성' 무용수는 '젊고 아름다워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 퇴임 이후에도 무용수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 입장에서 이러한 편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양성옥 29:03

요즘 굉장히 외모 지향주의잖아요. 이왕이면 뭐 예쁜 건 너무나 좋겠죠. 시각 예술이니까.

그런데 제가 춤추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국립무용단에 들어가니까 그 선배 언니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춤을 추는 거 보고, '나도 국립무용단에 가서 저렇게 추고 싶어  
 나도 저 무대에 서고 싶어' 이래서 국립무용단에 입단을 했어요.  
 입단을 했는데 선배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일반 사람들하고는 너무 다른 그런 외모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나는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연습밖에 없구나. 내가 실력을  
 기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춤을 외모로 표현하는  
 사람은 내용이 없는 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감정 이입에 의한 춤을 표출했을 때에 예술로 탄생되는 거죠.  
 제 경험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무용수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춤의 철학이 있고 춤의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양성옥 30:26**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색이 있고 결이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춤을 추더라도, 보여지는 현상  
 느껴지는 현상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외모를 추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추는 거다.  
 진실된 춤은 표현이지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 질문12 자막**

자막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껴지는 신체 변화로 어려웠거나 반대로 도움이 된 점이  
 있으신가요?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노력으로 극복하셨나요?

**양성옥 31:07**

제가 이제 공연 전에 춤을 만들면서 춤을 연습하면서 그때는 굉장히 삶의 희열을 느껴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신체적으로는 부상당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그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철저한 워밍업을 해요.  
 연습 전에 하체 근력 운동 이외에 저만의 루틴으로 거의 1시간을 워밍업을 해요.  
 그런데 그 워밍업이 굉장히 춤추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춤을 추면서 느낀 거는 춤이 생활화가 돼서 신체의  
 리듬을 지키는 일이에요.  
 내 신체의 리듬을 깨지면 부상하게 되는 거야. 그 신체의 리듬을 지킴으로써 부상도 방지하고  
 춤의 연결성도 계속 이어가면서 춤도 성숙해지고, 또 다른 표현을 낳게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저만의 철칙이 그렇게 워밍업을 철저히 합니다.

## 5. 생애사3 : 정착기 (2019 - 현재)

### #. 질문 13 자막

자막 : 한국예술종합학교 퇴임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또한 현재 준비 중인 활동은 무엇인가요?

#### 양성욱 32:50

제가 이제 퇴직 후에 제2의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단법인 강선영 춤 전승원'을 개원했구요.

이 전승원에서는 강선영 선생님의 춤을 이룰테면 승무, 입춤, 훈령무, 장고춤, 태평무 이외에 소멸되어가는 춤이나 사멸된 춤들을 복원해서 실현하고 있고 그것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중한 춤들을 제가 이어가야 되는 그런 책임감으로. '어쩌면 학교생활보다 더 힘든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질문 14 자막

자막 : 지난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로 지정된 이후, 전통춤의 전형 유지와 전승 등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나 변화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 양성욱 33:56

예전에는 막연히 이제 제가 태평무 전수 조교로서 또 어떤 선생님의 춤을 받아서 열심히 실현하는 무용수로서 아니면 또 제가 안무한 작품을 주는 그런 무용가라면. 지금에 와서는 무형문화제가 되고 나니까 요즘 현 실태의 그 무용 형태를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다장르죠. 또 어떤 여러 분야와 협업에서 발생하는 예술 형태가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좋아요. 이런 부분도 활성화되고, 또 반면에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전통춤 유산을

#### 양성욱 34:46

'올곧게 정말 전승해야된다'는 그런 의무감, 책임감이 더 막중해져서. 이제는 어떠한 것보다도 '지켜나가는 지킴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지금은 살아가고 있죠.

### #. 질문 15 자막

자막 :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선생님의 대표 작품과 레퍼토리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또한 선생님의 삶에서 춤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양성옥 35:23**

우리 이제 스승님들의 춤을 전수받았기도 했지만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저의 춤길을 가면서 저의 작품 세계도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춤을 춰야 될 것인가. 한국인의 문화 한국인의 기질이 들어간 춤을 춰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항상 내 마음속에 내재 돼있기 때문에 한국 전통 예술의 국악기 그 악기별 춤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야금 산조의 추상, 거문고의 여정 또 대금산조의 죽향 또 아쟁의 비나리 또 피리의 상령산풀이 같은 건데요.

이 작품은 내 몸속에 내재 된, 용해된 춤사위로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살아가는 과정 내 삶을 표현한 작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춤은 내 삶 속에 생활이요. 또 생활이 춤이요."

또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춤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 질문 16 마지막으로 예술가로서 혹은 교육가로서 후학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양성옥 36:54**

그렇죠. 제가 이제 계속 말이 반복은 되는데요. 이제 차차차 자기 춤길을 가면서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단축시켜줘야 되는 선생님들의 노하우 선생님들의 내가 경험했던 거 그거를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용가는 예술가는 자기만의 춤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남의 거를 모방하는 춤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춤 철학에서 나오는 춤이 돼야 된다.

우리 속담에 산 너머 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은 춤의 시작은 있지만 춤의 끝이 없어요. 영원한 미완성이죠.

그러면 춤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방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나 자신과의 대화를 해요.

춤을 추면서 '이건가 저건가'

**양성옥 38:03**

'이럴까 저럴까', '면이 안 맞아, 이랬을 때 더 표현력이 좋아, 이랬을 때 더 춤집이 멋이나.' 뭐 이러면서 수많은 나 자신과의 그 내재된 내용을 찾아야 되고, 그거는 바로 끊임없는 연습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춤은 미완성이 그래서 춤을 대할 때는 "나 이거 이미 배웠어." 이게 아니라 항상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고, 항상 처음처럼 항상 처음처럼 연습을 대해야 되는 거죠.

접해야 되고 사실 저는 지금도 제 자랑 같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질문17 자막

자막 : 오늘 함께 지나간 삶을 돌아보며 느끼신 소회를 나눠주신다면?

**양성욱 39:11**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지나간 이야기들을 하고, 제가 어릴 때 추억부터 또 성장기부터 프로 생활 지도자 또 이제 보유자 역할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갖고, 그동안의 그런 경험 노하우들이 막 주마등처럼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이 장소에서 바로 학생들한테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또 여기서 실기 실습이라는 거를 저희가 항상 매주 화요일날 실기 실습을 이제 여기서 수업을 해요.

그러면 저 학생들한테 저 단점을 내가 경험한 거를 계속 지적해 주고 또 피드백도 받고 이제 그랬는데 과연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학생들이 마음이 아플까', '이거를 진정한 선생님이 말하는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일까' 그런 나만의 그런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나만의 그런 불안감 그래서 막 어떤 때 가혹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너무 가혹하면 이걸로 저는 저 학생 무용을 그만둘 거야.'

그러니 희망을 주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

**양성욱 40:25**

근데 너무 희망을 주는 말만 하니까 또 너무 안이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당히 해서 말을 해줄까.' 그런 생각이 너무 나네요.

여기에서 그래서 저는 막 가혹한 말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제 자신이 제가 알아서 연습을 하는 사람이라 '결국은 지금은 모자르지만 결국은 저 사람도 무용가로 성장하고 좋은 예술가로 갈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죠.